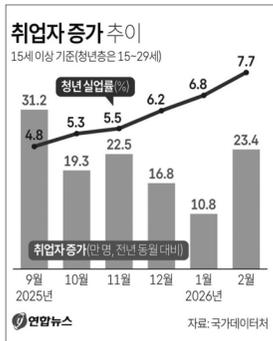


광주 고용률 60%대 회복...IT·서비스업 취업 활기

지난달 취업자 '76만8000명' 4000명↑ 전남 2000명 증가...실업률 동반 상승 전국 청년실업은 7.7% 5년만에 최고

광주 취업자가 4000명 늘면서 고용률이 60%대로 회복됐다. 다만 실업률도 소폭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이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젊은층의 일자리 지표는 악화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팀이 발표한 '2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다. 이에 지난 1월

59.9%에서 60%대로 다시 올라섰다. 취업자는 76만8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다. 반면 실업자는 2만9000명으로 3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3.7%로 0.3%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2000명, 14.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000명, 1.8%)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8000명, -5.5%), 제조업(4000명, -3.8%), 농림



어업(2000명, -13.8%)은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6000명, 4.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3000명, 1.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00명, 8.3%)가 증가했고, 관리자·전문가(6000명, -3.1%), 서비스·판매종사자(1000명, -0.3%)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1만명(1.6%) 늘었다.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1만9000명(4.4%) 증가했고 일용근로자 5000명(-17.5%), 임시근로자 4000명(-3.1%)이 각각 줄었다. 자영업자는 6000명(-4.2%) 감소했다. 지난달 전남의 고용률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지만 취업자는 98만6000명으로 2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9%로 0.7%p 상승했고, 실업자는 7000명 늘어난 4만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1000명, 6.3%),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4000명, 19.8%), 제조업(1만

1000명, 10.3%)에서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3000명, -11.7%), 농림어업(1만5000명, -7.7%), 건설업(7000명, -7.9%)은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1만7000명, 15.7%), 관리자·전문가(1만5000명, 11.8%)가 증가했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1만1000명, -3.3%), 농림어업숙련종사자(1만명, -5.2%), 서비스·판매종사자(8000명, -3.6%)는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2만2000명(4.5%), 임시근로자는 1000명(0.3%)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7000명(-17.9%) 감소했다. 이에 임금근로자는 총 1만5000명(2.4%) 늘었다. 비임금근로자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가 3000명(4.3%) 늘었고, 자영업자는 1만6000명(-5.4%)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2만5000명을 기록한 후 12월 16만8000명, 1월 10만8000명으로 쪼그라들다 3개월 만에 20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9월 31만2000명에 이어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8만7000명, 30대 8만6000명, 50대 6000명이 각각 늘었다. 다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4만6000명 감소했다. 특히 40세 미만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의 10.1% 이후 가장 높았다. 20대와 30대 실업률도 각각 7.6%, 3.6%로 2021년 2월의 10.0%, 4.0% 이후 같은 달 기준 최고였다. **임재홍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전남도는 18일 전남 동부지역본부에서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신민호·강정일·박경미 전남도의원,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개소

동부지역본부서 접수·상담부터 지원 안내까지 원스톱

전남도는 18일 전남 동부지역본부에서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개소를 알리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다. 개소식에는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신민호·강정일·박경미 전남도의원,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센터장 등 관

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피해접수와 상담 △법률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 안내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안내 △주거 지원 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이런 지원센터 설치의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상담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피해 접수와 상담이 원활히 이뤄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실무적 해결을 돕는 '원스톱 지원 창구'로서 관계 기관과 협력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도에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2024년부터 도 자체 재원

을 투입해 1가구당 10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임차인 전세보증 가입에 필요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1인당 4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임진출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운 도민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센터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해결할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광주형 안심일터' 표준모델 만든다

시, 국비 6억 확보...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

광주시가 소규모 제조업체와 영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공모사업에 '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 사업'이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특성과 위험요인을 반영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형 사업이다. 광주시는 지역 산업 구조와 중대재해 예방 현황 등을 분석해 '제조업 안전길잡이 구축'과 '건설 안전기동대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제조업 안전길잡이 구축'은 상시근로

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보기 등 스마트 안전설비 설치 지원, 보호구 보급, 작업 전 안전점검의(TBM) 지도,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건설 안전기동대 운영'은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 및 보호구 지원과 현장 기술지도 등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사업 운영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맡고,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망을 완성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대재해 예방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 중동발 위기 대응 금융지원 확대

중기·소상공인 대상 6000억 규모 긴급 자금·특별보증

전남도는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해 유가와 물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중동사태로 수출입 차질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운영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보정 지역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2년 거주 일시상환 조건과 함께 2.5%p 이차보전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대출이자 3~3.5%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동사태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부 긴급 물류비우회 사업과 연계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자재 수급과 물류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할 예정이다. **박정원 기자 holbul@gwangnam.co.kr**

신협재단, 소외계층 대학생 55명에 장학금

총 4500만원 규모...학업·생계 병행 청년 부담 완화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6년 소외계층 대학생 55명을 선발해 총 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등록금이 아닌 생활비 성격으로 지급됐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재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중도 포기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장학생 선발은 전국 대학 및 유관 단체와 연계된 직장 신청, 그리고 사회공헌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 계층의 추천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역 단위 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발굴된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재단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학업 지속은 물론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재단은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 도 신탁 임직원들이 소외계층 아동의 멘토로 참여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어바바 멘토링', 취약계층 아동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행복한집 프로젝트', 전통문화와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신협철도999)', 전통한국음악예술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국악영재 육성 사업' 등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신보, 소상공인 보증료 최대 5년 지원

신규 보증업체에 총 3억원 규모...평균 26만원선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신규 보증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보증료 지원사업이 총 3억원 규모로 추진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은 신규 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 동안 연체당 연 0.1%에서 0.7%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1100개 업체가 평균 26만원 수준의 실질적인 보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기한 연장 업체를 대상으로 총 5억원 규모의 보증료를 지원해 3950개 업체가 보증료를 절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신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5억원 규모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1959개 업체에 26만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전남신

보 보증료감면 정책으로 폐업사업자, 재기사업체 등 약 170개 업체가 금융비용을 줄였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창업기업과 경영에 로기업을 대상으로 '전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당 2년간, 연 3.0~3.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1000억원이었던 지원규모를 이번 추경을 통해 20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신보는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보증료를 상환 비율에 따라 최대 연 0.3%까지 감면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또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전남도 위기 기업 긴급지원 특별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한층 완화된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홍 기자**

코스피 5900 '안착'...기관 순매수액 역대 최대

코스피가 18일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5% 넘게 급등해 5900선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84.55p(5.04%) 상승한 592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6.62p(2.24%) 상승한 5767.10으로 출발한 후 강세를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어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오후 2시34분에는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발동 시점의 코스피 200선물 지수는 전날 증가 대비 5.08%

오른 887.25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800억원, 3조1092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 순매수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개인은 3조8712억원을 순매도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풍'이 추가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7.53% 뛴 20만 8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20만 전자'에 복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8.87% 오른 105만6000원을 기록하며 '100만 닉스'를 재발성했다. **임재홍 기자 djawody0316@**